

국어 교과와 영역명에 관한 일고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전은주*

<차 례>

- I. 서론
- II.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
- III. 영역명의 기능과 명명의 원리
- IV.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 사용된 ‘듣기·말하기’ 영역명의 타당성
- V. 결론

I. 서론

최근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¹⁾ 이번 교육과정은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국어 교과의 목표를 도구 교과에서 인격 형성 교과로 확장한 점, 국어 교과의 내용을 5대 영역으로 구분한 점, 30% 정도 교육 내용이 대폭 감축한 점, 학년군으로 성취 기준을 제시한 점, 내용 체계에 ‘태도’가 부활되고 ‘맥락’이 빠진 점, 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한 점 등을

* 부산대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번 교육과정의 명칭을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으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차’와 같이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처럼 개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편리하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새 교육과정을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부르겠다.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듣기’와 ‘말하기’로 영역을 구분하던 것을 ‘듣기·말하기’ 한 영역으로 통합한 것은 국어교육사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이 바뀔 때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특히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영역명이 나타나게 된다. 또 영역 구분의 방법이 바뀌지 않더라도 영역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교육과정 개정시 영역명을 수정하기도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새로운 영역명이 제시되면 교육현장에서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좋은 싫든 그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역명이 한 번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번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이것은 국어 교과에서 영역의 명칭을 정할 때 내재되어 있는 명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국어과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했을 영역명들을 살펴보고, 국어과에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 내재해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채택하고 있는 ‘듣기·말하기’라는 영역명이 합당한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

1. 국어과 영역 구분의 변천

일반적으로 각 교과에서 학습자들이 교수-학습해야 할 내용을 내용의 특성에 따라 구분짓은 것을 영역이라 한다(최미숙 외, 2008 : 38). 국어과에서도 이러한 영역 구분을 하고 있음은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살필 수 있다.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공통 교육과정] ‘국어’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내용 체계’와 ‘학년군별 세부 내용’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내용 체계’를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등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국어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선택 교육과정]의 ‘국어 I’, ‘국어II’에서도 이들 과목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부 내용’을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²⁾

최현섭 외(1999 : 83)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역을 구분하는 이유를 ① 국어활동의 여러 양상을 교육과정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② 국어능력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며, ③ 영역에 따른 교수·학습 특화가 가능하고 목표별 단원구성에서는 각 영역이 단원 구성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처럼 특정 시기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관점 또는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이진과 비교하여 강조할 내용이 있을 경우 국어과의 영역 구분 또한 바뀔 가능성이 크다. 국어과에서 영역의 이름을 어떤 원리에 의하여 붙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영역명이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변천해 왔다.³⁾

-
- 2)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10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두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어 교육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구분해왔다. 즉 영역 구분 방법이 같았으며, 영역명 역시 같았다. 그러나 현재는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와 ‘선택 교육과정’의 ‘국어 I’, ‘국어 II’는 영역 구분의 방법은 같으나 영역명은 달리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 3) 공통 교과로서 ‘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다만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부분은 ‘선택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역명도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⁵⁾

〈표 2〉 영역명의 변천

1) 문법 → 언어 → 국어지식 → 문법
2) 말하기, 듣기 → 표현·이해 ⁶⁾ → 말하기, 듣기 → 듣기·말하기
3) 국문학사 → 문학
4) 짓기, 쓰기 → 쓰기

<표 2>와 같이 현재 ‘문법’ 영역은 영역명이 문법에서 언어로, 언어에서 국어지식으로, 국어지식에서 다시 문법으로 바뀌어 왔다. 현재 ‘듣기·말하기’ 영역은 과거 ‘말하기’, ‘듣기’ 영역으로 각각 구분되었던 것이 읽기, 쓰기와 통합하고 언어 기능 네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표현·이해’라는 영역명으로 명명되었으며, 이후 다시 네 영역을 분리하여 종전과 같이 영역명을 붙여, ‘말하기’ 영역과 ‘듣기’ 영역으로 불리었다. ‘국문학사’는 ‘문학’으로 영역명이 바뀌었으며, ‘짓기’와 ‘쓰기’로 각각 구분되었던 영역이 후에 ‘쓰기’ 하나로 통합되었다. 영역명의 이러한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시기별 영역명의 변천

시기 영역명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1개정
문법	문법	——			언어			국어 지식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표현· 이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국문학사	국문학사	——			문학					
짓기, 쓰기	짓기, 쓰기	쓰기								

(‘——’는 그 영역이 독립 영역으로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5) 이 부분에는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인 ‘국어Ⅰ’과 ‘국어Ⅱ’의 영역 구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6) 이 영역명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언어 기능에 대한 교육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요목기에 처음 사용된 영역의 명칭이 이후 두세 번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읽기’ 영역의 경우 4차 교육과정 때 ‘표현·이해’에 통합되어 명명 되다가 이후 다시 ‘읽기’로 분리된 후에 명칭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영역명의 경우는 2~4번의 변화를 겪었다.

1) ‘문법’ 영역명의 변화

영역명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문법’ 영역이다. ‘문법’ 영역은 교수요목기에 ‘문법’이라는 명칭에서 현재까지 ‘언어’, ‘국어지식’ 등으로 여러 번 명칭이 바뀌어왔지만 대개 우리 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가르쳐 왔다는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⁷⁾ 그러나 영역명이 바뀔 때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언어’ 영역이 ‘언어의 본질과 특질에 관한 지식’을 지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1~3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영역을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4개로 구분하여 문법이 별도의 영역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문법이 지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박봉배(1987 : 243)에는 ‘언어’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문교부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 개정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의 하나는 문학 교육과 함께 언어 영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도 언어 영역을 다루지 아니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상시켜 역점을 두어 다루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즉,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어 교육의 기초기부터 자기 나라 국어의 특질과 독특한 말의 쓰임 등을 철저히 다루어, 고유 문화권을 수호하고 국민성을 바람직하게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자국어 교육을 진전시

7) 교수요목기의 중학교 국어 교수 요목에는 ‘문법’의 내용을 ‘국어의 소리, 글자, 어법, 표기 등의 대요를 가르쳐, 국어의 됴됨이와 그 특질을 이해하게 하고, 또 현대어, 신조어, 고어, 방언, 표준어, 외래어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 국어의 사적 발달의 개요(概要)를 알게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문교부, 1986 : 71).

켜 가고 있으며, 또 하나는 언어학적 학습이나 문법학적 학습과, 언어 학습이나 어법 학습의 구별을 하지 못하여 혼돈하는 과오를 자각시켜, 정상적인 국어 교육을 하자는 데 근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이를 보면 4차 교육과정에서 ‘언어’라는 영역명을 사용한 이유가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이 언어(국어)에 관한 지식의 이해이며, 이 영역의 교육이 ‘언어학적 학습’, ‘문법학적 학습’이 아니라 ‘언어 학습’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국어지식’으로 명칭을 바꾸며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 있는 표현력과 이해력도 ‘언어’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는 점, 보통 교육의 일환으로 실천되는 초·중등 학교의 국어 교육이 언어학 일반이나 국어학의 지식 체계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 국어에 대한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교육 내용의 선정과 각각의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조정하였다(교육부, 2001 : 19).

즉, ‘국어지식’이라는 명칭이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 내용이 성격을 명료히 하는 데 도움이 되어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2008 : 15)를 보면, ‘국어지식’이라는 영역명 역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듣기, 말하기, 쓰기, 문학 영역을 모두 지시한다는 점과, ‘국어 지식’에서 ‘지식’이 ‘쓰임과 활용’까지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문법’으로 영역명이 바뀌었다. 즉 ‘문법’ 영역명의 변천 이유는 교육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영역명이 ‘포괄적’이어서 교육 내용을 다른 영역의 내용과 구분하여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말하기’와 ‘듣기’ 영역명의 변화

교수요목기에 초등학교에서는 영역 구분을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로 5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중학교에는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로 6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교수요목기 이래 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의 영역명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4차 교육과정 때에는 국어과의 영역을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구성하였다. 당시 교육과정의 ‘지도 및 평가상 유의점’에는 ‘표현·이해’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 ‘언어’는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 ‘문학’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지도하되 상호 관련되도록 한다(문교부, 1986 : 137)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이전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영역으로 국어과 내용을 구분하던 것에서 이들을 모두 ‘표현·이해’라는 명칭 하에 한 영역으로 묶고, ‘언어’, ‘문학’을 새로 국어과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기능의 약화, 언어와 문학 지식의 강화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합친 통합 영역명을 ‘표현·이해’로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적 측면, 듣기와 읽기의 이해적 측면을 병렬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 그러나 언어 사용 영역을 통합하여 칭한 ‘표현·이해’라는 영역명은 문자언어 의사소통인 읽기, 쓰기와 구두 언어 의사소통인 말하기, 듣기의 영역별 특징보다는 모두 수사학적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대인 관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1987년 개정 공포된 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사에서 이전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인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부터 ‘기능중심 국어교육관’에 의해 국어 교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어 교육의 목표를 언어 사용 기능 신장으로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4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 영역 속에 묶어두었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여 언어, 문학 영역과 더불어 6대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최현섭 외, 2005 : 163). 이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언어 사용 기능을 교수-학습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각각 영역으로 독립하고 영역명에서도 언어 사용 활동의 각각을 그대로 드러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언어 사용 기능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올해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⁸⁾이 고시되기 전까지 언어 사용 영역을 강화하여 독립적으로 4영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영역명 또한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2개를 통합하여 ‘듣기·말하기’ 영역 하나로 설정하여 국어 교과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으로 5대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간 ‘듣기’와 ‘말하기’를 두 영역으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는 여러 번 있었다.⁸⁾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두 영역이 통합되어 ‘듣기·말하기’ 영역이 된 이유에 대하여 민현식 외(2011 : 76)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의 내용 영역을 기존의 6개에서 5개로 축소하였다. 즉 기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축소함으로써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하여 ‘듣기·말하기’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글말 활동에 비해 두드러지는 입말 활동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하고, 유사 영역의 효율적 통합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는 내용 감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듣기·말하기’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특징인 입말 활동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할 수 있고, 또 두 영역 모두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사 영역 통합으로 내용 감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감축을 위하여 기존 두 영역을 통합했던,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하여 두 영역을 통합했던 새 영역이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다.⁹⁾

8) 이와 관련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9) 유사 영역의 효율적 통합을 통한 교육 효과를 위해 ‘듣기·말하기’ 영역으로 통합하였

그러나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을 통합한 새 영역의 명칭을 ‘듣기·말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3) ‘문학’ 영역명의 변화

문학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어 교육된 것은 1981년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 그 이전 문학은 ‘읽기’ 영역에 포함되어 교육되었으며, 특이하게 교수요목기의 ‘교수 요지’ 부분에 지금의 영역 개념으로 국어과의 지도 내용을 분류할 때 ‘국문학사’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당시 ‘교수 요지’에는 ‘국문학사’가 ‘국문학의 사적 발달의 개요를 가르쳐, 국민의 특성과, 고유문화의 유래를 밝혀, 문화사상상의 우리 고전(古典)의 지위와 가치를 알림’이라고 교육 내용을 밝히고 있다. 즉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문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보면서 국문학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문학사’라는 별도의 교육 내용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수요목기에만 나타나고 이후 1~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문학 관련 교육이 ‘읽기’ 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다.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영역의 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새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문학 영역을 독립시켰다. 문학 교육은 문학의 이론이나 작법에 대한 지식 전달보다는 올바른 감상력 신장에 역점을 두었다.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고상한 취미와 강인한 의지, 인간 존중의 태도, 심미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하여 삶의 즐거움과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다는 것은 ‘읽기’와 ‘쓰기’ 영역 역시 일정 부분 유사한 교육 내용이 있으므로 통합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영역 통합에 대한 그리 합당한 논리라 보기 어렵다. 교육 내용을 감축은 해야 하는데 왜 ‘듣기’와 ‘말하기’만 유사 교육 내용이라고 통합되어야 하는가? ‘쓰기’와 ‘읽기’ 영역은 통합될 수 없는가? 오히려 기존의 ‘듣기’와 ‘말하기’로 영역을 분리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했을 때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고유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된다.

1985 : 5).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문학’은 교수요목기에 ‘국문학사’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다가 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영역에 통합되어 있다가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 영역으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역명의 관점에서 보면 문학 작품 읽기와 관련된 ‘읽기’ 영역 교육 내용을 독립하여 새로운 영역이 탄생되었고 새 영역명은 교육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문학’으로 명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쓰기’ 영역명의 변화

‘쓰기’ 영역은 앞의 <표 1>에서 살필 수 있듯이 교수요목기의 국민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짓기’, ‘쓰기’ 두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통합한 영역에 해당한다. 교수요목기의 ‘짓기’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적어 표현하게 하는 것 즉 글짓기를, ‘쓰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바르고 아름답게 쓰도록 하는 것 즉 글씨 쓰기를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 두 교육 내용이 통합되었고, 영역명은 ‘쓰기’로 칭해진 것이다. 실제 1~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명으로 ‘쓰기(글짓기)’로 표시되다가 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쓰기’로만 표현되었다.

‘쓰기’ 영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언어 사용 기능들과 통합하여 통합 영역명인 ‘표현·이해’로 불리었다. 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다시 독립 영역 ‘쓰기’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다. 영역명으로서의 ‘쓰기’는 글씨쓰기와 글짓기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으면서도 다른 언어 사용 기능 신장을 담당하는 영역명과 균형을 고려한 명칭이라 볼 수 있다. 만일 ‘쓰기’와 ‘짓기’가 통합되면서 통합 영역명으로 ‘작문’을 채택한다고 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등의 영역명과 균형이 맞지 않는 면이 있다.¹⁰⁾

Ⅲ. 영역명의 기능과 명명의 원리

1. 영역명의 기능

교육과정에서 한 교과에서 교육해야 할 내용을 무작위로 나열할 수는 없다.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육해야 할 여러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다른 내용과 구별하여 명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이유를 최현섭 외(1999 : 83)에서처럼, 국어활동의 여러 양상에 대한 포괄적 반영 가능, 국어 능력에 관한 체계적 접근 가능, 교수-학습 특화가 가능 등으로 상정한다면 이러한 영역 구분의 이유를 만족할 수 있게 영역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영역명은 국어 교과에서 지도할 것을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 특정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이것이 다른 것과 동일하지만 않다면 이 영역명은, 그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다른 영역과 구획을 가르게 해준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 묶고 이것의 명칭을 ‘쓰기’로 하든 ‘영역1’로 하든 일단 이것은 다른 영역과 이 영역을 구분하게 해준다. 단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영역의 명칭을 ‘영역1’이라고 붙이지 않고 ‘쓰기’라고 명명하는 것은 영역의 명칭을 명명하는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10) ‘작문’은 이후 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선택과목명으로 사용된다. 6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말하기와 듣기를 심화한 과목, 읽기를 심화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설정이 된다. 그러나 이들은 각각 ‘화법’, ‘독서’로 명명되었고, 결국 ‘화법’, ‘독서’, ‘작문’은 동일 수준에서 선택과목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문법’, ‘문학’은 영역명인 동시에 선택과목명으로도 사용되는데, ‘듣기·말하기’, ‘쓰기’, ‘읽기’ 영역은 각각 화법, 작문, 독서라는 별도의 선택과목명을 가지고 있다.

있다.

둘째, 영역명은 영역 간의 교육 내용을 구별해 주는 기능이 있다. 영역명이 일차적으로 영역들끼리 상호 구분의 기능을 하면서 한편으로 영역명은 그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과 다른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와 교육 내용의 분야가 다르다. 전자는 ‘문학’ 영역에, 후자는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이다.¹¹⁾ 영역명을 ‘영역1’, ‘영역2’와 같이 붙였을 경우는 그 영역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우나, ‘문학’, ‘문법’ 등과 같이 명명했을 경우는 여러 영역의 교육 내용이 혼재해 있다더라도 영역별로 내용의 구별 가능하다.

셋째, 영역명은 영역의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내용의 성격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영역의 명칭을 적절하게 정한 경우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과 같은 영역명과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표현·이해’라고 하는 영역명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그 영역에서 교육해야 할 기능과 주된 활동을 드러내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영역 내 포함된 활동의 공통된 성격을 드러내 준다. 또 전자의 경우는 영역명에서 이미 각각의 언어 기능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문자언어 의사소통과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구분 없이 표현 측면에서의 공통점, 이해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교육의 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후자의 경우 영역명에서 언어 사용 기능 각각의 교육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후자에 비해 전자의 영역명이 교육 내용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역의 명칭은 교과 내용의 구분 기능, 영역 간 교육 내용의 구별 기능, 영역 교육 내용의 명료화 기능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이들은 각각 문학 영역과 문법 영역의 5~6학년군 성취기준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영역 명칭이 영역 간의 교육 내용을 구별해 주고, 영역의 교육 내용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작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명이 필요하다.

2. 영역명 명명의 원리

영역명은 영역을 부르는 이름으로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을 구별하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영역명 명명의 첫째 방법은 영역의 명칭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는 ‘구별성’을 들 수 있다. 교육 내용의 차이에 따라 영역을 갈라 나눈 후 이들 영역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여야 명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만족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역명은 단지 영역간에 서로 구별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앞서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의 과정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영역의 영역명이 변화된 경우와 당시 문서상에 영역명이 왜 변화되었는가를 설명한 부분을 분석해 보았다.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바꾸듯이 영역명의 변화 역시 변화된 교육의 내용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명명의 방법을 추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명 변천의 과정에서 살필 수 있는 좋은 명명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역의 명칭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역명이 서로 구별된다 하더라도 영역명에서 그 영역에서 가르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다면 좋은 명명의 방법이라 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역1’, ‘영역2’, ‘영역3’ 등이 좋은 영역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그 영역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가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법’ 영역의 명칭이 국어과 교육과정사에서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다시 현재 ‘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명칭이 영역 교육 내용의 전체를 표시할 만한 한 부분을 담고 있어 대표성을 만족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문법만은 아니며, 현재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문

범은 전체 교육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 ‘문법’ 영역의 성격을 도구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혹은 내용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역시 분분하다. 그러나 영역명으로 ‘문법’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영역에서 지도해왔던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으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말과 글의 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 내용을 다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표성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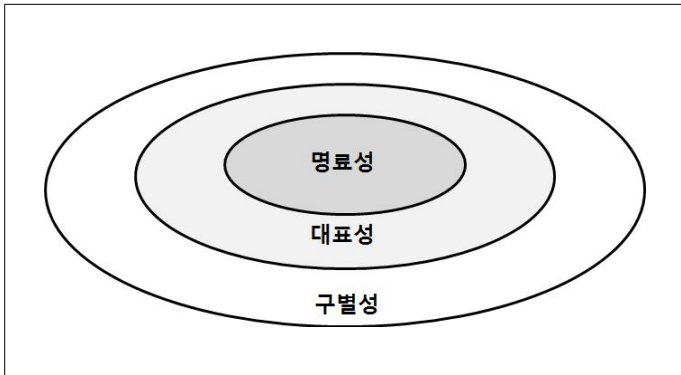
또 영역의 명칭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는 ‘명료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영역의 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적절한 명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이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없으므로 ‘국어지식’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이 명칭 역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국어과의 모든 영역을 모두 지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영역명이 여러 영역의 교육 내용을 포괄하는 표현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영역만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할 때 바람직한 영역명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역명이 구별성, 대표성, 명료성 등을 갖추었을 때 다른 영역과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성격을 구분하여 줄 수 있어 영역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래 <표 4>와 같이 영역이 가지는 구분의 기능을 위해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는 동일하지 않은 영역명만 가지면 되지만, 이러한 영역명은 영역이 가지는 ‘교육 내용 구별의 기능’과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 성격의 명료화 기능’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영역이 구별의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역명 역시 ‘구별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명명되어야 한다. 또 영역이 ‘교육 내용을 뚜렷하고 분명히 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역명이 ‘대표성’과 ‘명료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명명되어야 한다.

〈표 4〉 영역의 기능과 영역명의 성격

영역의 기능	영역명이 갖추어야 할 성격
교과 내용 구분의 기능	
영역간 교육 내용의 구별 기능	구별성
영역 교육 내용을 뚜렷하고 분명히 하는 기능	대표성 명료성

그러나 영역명을 명명하는 이러한 원리가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다. 영역명 명명의 원리 간의 관계를 나타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역명 명명의 원리 간의 관계

영역명을 명명할 때 ‘구별성’은 가장 기본적인 명명의 원리이다. 구별성을 만족하는 명명법이 대표성이나 명료성을 꼭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료성을 만족하는 명명법은 그 영역의 명칭과 다른 영역의 명칭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드러낼 수 있어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영역의 교육 내용을 대표하는 명명법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내 주기 어렵다는 것을 ‘문법’ 영역명의 변천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영역명 명명의 최상위 원리는 명료성이며, 이러한 최상위 원리를 만족하는 명명이 아닐 경우 교육 공동체에게 교육 내용이나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어 교육과정이 바뀔 때 수정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국어과

의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그 영역의 명칭이 결정될 때 과연 그것이 영역명으로서 타당한가를 살펴볼 때 이 같은 영역 명 명칭의 원리를 얼마나 충족하는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IV.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 사용된 ‘듣기·말하기’ 영역명의 타당성

1.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의 의미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듣기·말하기’라는 새로운 영역명이 생겼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영역이나 영역명이 나타날 때 이와 관련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영역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것은 ‘듣기’와 ‘말하기’ 두 영역을 통합하여 ‘듣기·말하기’로 명명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발진이 별 의문 없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영역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7차 국어과 「생활국어」교과서에 두 영역을 통합하여 단원의 교육 내용 영역을 표시할 때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역명을 나열할 때 순서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으로 해오다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발달적 순서를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으로 바꾸었다. 그 이전 오랫동안 말하기와 듣기 두 영역을 함께 나열해서 표현하거나 통합의 의미로 표현할 때 ‘말하기와 듣기’, 혹은 ‘말하기·듣기’ 등으로 부르다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 같이 영역명 순서가 바뀐 이후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 7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명은 종전 그대의 표현 방법에 따라 「말하기·듣기」라고 하였으나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 내에서는 단원의 주 학습 내용이 어떤 영역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듣기·말하기’ 혹은 ‘말하기/듣기’라는 표현을 혼용하였다. 따라서 두 영역을 통합한다는 의미 혹은 두 영역을 순차적으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것이 알맞은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둘째,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국어 교육 관련 논문에서 두 영역을 함께 지칭할 때 혹은 순차적으로 나열할 때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일부 연구자들은 종전에 널리 사용하던 방식을 따라 ‘말하기·듣기’로 표현하였다.

셋째, 영역명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독립적으로 있던 영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는 ‘표현·이해’ 영역 밖에는 없었는데 ‘표현·이해’라는 영역명은 독립 영역명의 공통 특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융합한 경우이다. 그러나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을 통합한 영역명의 경우는 단지 두 영역을 7차,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배열한 순서에 따라 결합해 놓은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차 이전 오랫동안 ‘말하기·듣기’라는 순서로 사용해왔던 표현도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합된 영역을 어떻게 명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은 1) ‘듣기’와 ‘말하기’ 두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한 단원이라는 의미와 2)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라고 나열해서 부르는 것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축약해서 뒤 쪽에만 영역이라는 것을 밝히고 함께 붙였기 때문에 여전히 ‘듣기’와 ‘말하기’ 각각의 영역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영역으로서, 기존의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의 교육 내용을 통합한 새로운 한 영역을 ‘듣기·말하기’로 명명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영역명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의 타당성

그간 국어와 교육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각각의 영역으로 설정하고도 교육 방법을 제시할 때는 두 영역을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독립 영역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설정한 뒤 이를 통합해서 교육하는 것과 아예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서 이해와 표현에 관한 교육을 한 영역으로 설정하여 교육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분리해서 보자면 이해로서의 읽기와 표현으로서의 쓰기처럼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서의 이해로서 듣기와 표현으로서의 말하기는 분명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적 관점과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실제 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듣기’와 ‘말하기’는 분리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듣기’와 ‘말하기’ 두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한 영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적합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다. 이창덕 외(2010 : 73~75)에서도 국어활동을 표현 활동과 이해 활동이라는 두 인지 작용의 축으로 분류하게 되면 ① 구두 언어 과정의 상호교섭적인 의미 구성이 교육의 내용에서 중심 자리에 놓일 수 없고, ② 구어 활동의 관계적 목표를 반영하기 어려우며, ③ 구어 활동과 문어 활동을 표현과 이해라는 두 축으로 분류하고 교육 내용으로서 기능을 동일하게 하면 국어 활동 교육이 다루기 까다로운 구두 언어보다는 다루기 쉬운 문어 중심의 활동으로 치우치게 되며, ④ 듣기와 말하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 영역 구분시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은 통합하여 한 영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 <표 5>를 보면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은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을 한 영역으로 처리하며, 호주의 경우는 내용 영역이 아니라 언어 양식으로 ‘듣기’와 ‘말하기’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 결국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자국어 교육과

정에서도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표 5> 외국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 영역 구분과 영역명 비교(이인제 외, 2005 : 676~677)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영역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제2주기: 입말 언어의 습득, 읽기와 쓰기 -제3주기: 일반 능력, 특수 능력 • 중학교: 읽기, 쓰기, 입말 언어 도구 • 고등학교: 합리적인 언어 활용과 의사소통 및 표현, 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영역과 언어영역 * 듣기, 말하기, 읽기, 보기, 쓰기는 내용 영역이 아니라 '언어 양식'을 다루는 것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쓰기, 읽기, 음성 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 • 중등학교: 문학과 읽기, 쓰기, 언어,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하기·듣기, 쓰기, 읽기 * 국어지식과 관련되는 내용은 '언어사'항에, 문학 및 교재 구성과 관련되는 내용은 '내용지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한자 병음, 글자 익히기와 글씨쓰기, 읽기, 말을 글로 적기, 입말 글로 의사소통 • 중학교: 읽기, 쓰기, 입말 의사소통, 어문 상식, 본문, 과외 활동 • 고등학교: 읽기, 쓰기, 입말 의사소통, 본문

그렇다면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영역의 이름은 어떻게 칭하는 것이 좋은가? 다른 나라 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영역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영역명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명칭을 붙였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가장 타당한 영역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표 5>에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영역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영국은 '말하기와 듣기', 일본은 '말하기·듣기'로 명명을 하고 프랑스는 '입말 언어', 중국은 '입말 의사소통', 캐나다는 '음성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영역명은 '말하기'와 '듣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부르는 방법과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완전히 융합하여 영역명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병렬적으로 나열하더라도 이번 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듣기·말하기'처럼 '듣기'를 먼저 내세운 것이 아니라 '말하기'가 앞세워 '말하기와 듣기' 혹은 '말하기·듣기'로 표현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을 사(史)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

면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전에는 영역명을 늘 ‘말하기’, ‘듣기’의 순서로 사용해왔고 두 영역이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다보니 두 영역을 편의상 묶어 ‘말하기, 듣기’ 영역이라고 칭해왔다.¹²⁾ 그러나 7차 국어과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언어 습득의 순서를 고려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으로 재편하였고, 이 둘을 묶어 칭할 때 ‘듣기, 말하기’ 영역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전 그대로 ‘말하기, 듣기’ 영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국어과의 여러 영역을 나열할 때 순서를 정하기 위해 ‘언어 습득의 순서’를 내세울 수 있었듯이, 기존의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통합하여 한 개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서 영역명을 ‘듣기·말하기’로 명명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만일 7차 이후에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이어 사용했다든가 기존의 ‘언어 습득의 순서’로 통합 영역명을 정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 영역의 명칭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 현재 ‘듣기·말하기’로 칭해진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은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고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중요하나 역시 그 무게의 중심은 말하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과정을 생각해보더라도 한 참여자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어져 있고, 이 영역의 교수-학습 구조 역시 강연과 같은 일방적 듣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어떤 학습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반응하게 하는 과정으로 구성하게 된다.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성취 기준’을 보면, 기존의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통합하여 한 영역으로 하다 보니 하나의 내용 성취 기준에 듣기와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 다룰 수밖에 없다. 또 영역명을 ‘듣기·말하기’로 정하다보니 듣기와 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나열할 때 듣기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말하기에 대한 것을 뒤에 드러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내용 성취 기준의 핵심 내용이 분명

12) 이하 4.2장의 내용 일부는 2011년 7월 9일에 있었던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청회’의 자료집에 수록된 필자의 토론문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히 드러나지 않게 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1, 2학년군> ‘듣기·말하기’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2학년군) -듣기·말하기-

(4)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

일의 순서나 절차에 따라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한 방법이다. 대화를 듣거나 말할 때, 사건의 순서에 따라 듣고, 말하게 함으로써 서사적 듣기와 말하기의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직접 경험한 일이나 듣거나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일이 일어난 차례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한다. 일이 일어난 차례는 ‘어제, 토요일에, 주말에, 아침에, 저녁에’ 등과 같은 시간 표현과 ‘처음에, 그 다음에, 그 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등과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리한 내용의 순서에 유의하면서 실감나게 표현하도록 한다.

위 ‘내용 성취 기준’은 아래에 설명된 것을 보지 않으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이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하게 한다는 것으로 오독할 수 있다. 이 성취기준은 서사적 듣기와 서사적 말하기라는 두 개의 학습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나 실제 교수-학습으로 구현할 때는 서사적 말하기 능력 배양을 핵심 학습 내용으로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사적 듣기 역시 함께 가르치게 된다. 즉 성취 기준을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아래 설명된 부분을 보면 핵심 교육 내용은 역시 표현-말하기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통합 영역을 ‘듣기·말하기’로 명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차라리 영역명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흐름을 드러내고¹³⁾ 교육 내용의 무게 비중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13) 이번 교육과정 개발진도 이것을 교육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 체계’의 기능 범주의 하위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즉, ‘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기능을 ‘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 ‘표현과 전달’, ‘추론과 평가’,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두 언어 의사소통을 먼저 화자의 입장에서 ‘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하여 ‘표현과 전달’을 하며, 청자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추론과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말하기’에서 ‘듣기’로 넘어가는 순차적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구두 언어 의사소통 과정이 실제 이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 교육적 상황에서 학습 내용을 분절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가장 교육적으로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듣기’ 역시 중요한 교육 내용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말하기·듣기’로 하거나 ‘구두 언어 의사소통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의 장점은 7차 이후 영역 제시 순서가 ‘듣기’, ‘말하기’로 바뀌면서 이 두 영역을 축약 혹은 통합해서 부를 때 사용하였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장점은 동시에 7차 이전에 굳어졌던 ‘말하기·듣기’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바로 전 시기의 습관적 표현을 굳혀서 사용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영역명으로서 ‘말하기·듣기’의 장점은 이 역시 7차 이전에 두 영역을 축약 혹은 통합해서 부를 때 사용하였던 표현이고 7차 이후에서 여전히 두 영역을 함께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구두 언어 의사소통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 대하여 말을 하게 하고 이것을 청자의 관점에서 듣도록 교육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영역명은 이 영역의 교육이 구두 언어 의사소통적 관점에 중점이 있으며 관계적 목적을 중시하는 등의 교육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영역명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기존에 ‘말하기’와 ‘듣기’ 영역으로 분리되었던 시절 축약해서 사용하였던 ‘말하기·듣기’라는 표현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의사소통적 관점의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주지는 못한다.

이에 비하여 영역명으로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은 현재 국어교육 공동체에게 영역명으로서 생소하고 어색하다. 또 문자언어 의사소통인 ‘읽기’와 ‘쓰기’를 영역명으로 둔 상태에서 굳이 ‘말하기’와 ‘듣기’ 영역만을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한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구두 언어 의사소통적 관점의 교육 내용을 대표하며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해 줄 수 있는 영역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말하기’와 ‘듣기’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영역명보다는 융합된 영역명으로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¹⁴⁾

3. 영역명 ‘듣기·말하기’와 ‘화법’의 공존

새로운 통합 영역의 명칭을 정할 때 기존의 관련 영역명 두 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수동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손쉬운 명명이 영역명 명명이 가지는 기능을 만족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에서 거의 동일한 성격과 내용에 관하여 교육하는 영역명을 한 부분에서는 병렬적으로 나열한 ‘듣기·말하기’로 칭하고 한 부분에서는 ‘화법’으로 칭하고 있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가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국어Ⅰ’과 ‘국어Ⅱ’가 선택과목으로 새로 생겼다. 결국 이들은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합한 과목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 78). ‘국어Ⅰ’과 ‘국어Ⅱ’의 ‘목표’ 기술은 거의 비슷한데, ‘국어Ⅰ’의 목표 기술에 사용된 영역 관련 내용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국어Ⅰ’에서 학습자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화법(듣기·말하기)’, ‘독서(읽기)’, ‘작문(쓰기)’, ‘문법’, ‘문학’의 영역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수한다. 이를 위해 ‘화법’ 영역에서는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감적 듣기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 : 77)

‘국어Ⅰ’과 ‘국어Ⅱ’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국어과의 내용 종합한 과목이고, 이 목표 진술 부분을 보면 ‘듣기·말하기’ 영역과 ‘화법’ 영역이 동일한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과목이 ‘국어Ⅰ’, ‘국어Ⅱ’,

14) ‘구두 언어 의사소통’ 대신 ‘구두 의사소통’, ‘음성언어 의사소통’이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하다.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으로 6과목인데 각 선택과목의 세부 내용을 밝힐 때, ‘국어Ⅰ’, ‘국어Ⅱ’에서만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¹⁵⁾, 영역명은 공통 교육과정 ‘국어’처럼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듣기’와 ‘말하기’가 통합된 영역이라는 의미로 ‘국어Ⅰ’, ‘국어Ⅱ’에는 ‘화법’이라는 영역명을 사용하면서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에는 ‘듣기·말하기’라는 새 영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새 영역명이 영역명으로서 대표성, 명료성이 결핍된 것이라는 점 이외에 공통 교육과정 ‘국어’와 선택 교육과정 ‘국어Ⅰ’, ‘국어Ⅱ’의 영역 구분 방법은 같으면서 영역명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국어Ⅰ’, ‘국어Ⅱ’가 고등학교 수준으로 ‘국어’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에 영역명으로 ‘화법’을 사용하였다면 ‘문법’과 ‘문학’은 왜 공통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영역명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하여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하여 교육하는 영역을 ‘화법’으로 명명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굳이 영역명으로서 ‘읽기’와 ‘독서’, ‘쓰기’와 ‘작문’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새로운 통합 영역의 명칭을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라 칭하고 이것이 심화된 영역명으로는 ‘화법’을 사용하는 논리 역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V. 결론

이름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명칭인 것처럼 영역명이란 영역과 영역을 구별하는 명칭이다. 명칭은 이처럼 일차적으로 구별의 기능을 가지지만 이밖에 다른 기능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을 기

15)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다른 선택과목의 경우도 ‘내용의 영역과 기준’ 항 아래 ‘내용 체계’를 밝히고 ‘세부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만 이 경우 ‘내용 체계’를 구분 지은 범주를 ‘영역’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영역의 명칭을 정할 때도 이러한 명칭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명칭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영역 구분 이후 붙이는 명칭인 영역명이 어떤 기능을 하며, 국어과에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어 새로운 영역이 탄생되면서 이 새 영역에 명칭이 붙거나, 기존에 있던 영역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관점, 목표 등이 바뀔 때 따라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영역명으로 바뀌기도 한다. 국어과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2~4번 정도 영역명이 변천되었다. 영역명은 1) 국어 교과에서 지도할 내용을 갈라 구분해 주는 기능, 2) 영역간 교육 내용을 구별해 주는 기능, 3) 영역의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내용의 성격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영역명이 가진 이러한 기능에 맞는 명칭의 방법이 필요하다.

국어과에서 그동안 추구해온 영역명 명칭의 원리로는 구별성, 대표성, 명료성 등이 있다. 구별성이란 영역의 명칭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대표성은 영역의 명칭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료성은 영역의 명칭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명 명칭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방법이 5영역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 탄생된 ‘듣기·말하기’는 영역명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 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는 대표성, 명료성의 명칭 원리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기존 ‘듣기’와 ‘말하기’ 영역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영역 교육 내용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융합적인 명칭인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 영역명으로서 더 적절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11. 10. 31. 투고되었으며, 2011. 11. 03.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1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호[별책5].
-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주)미래엔 컬처그룹.
- 교육부(1985), 『중학 국어 교사용 지도서1-1』, 한국 교육 개발원.
- 김재춘·박소영 공역(2002),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8년 연구 이야기』, 교육
과학사, /Wilford M.Aikin, *The Story of the Eight-year Study*.
- 문교부(1986),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1946~1981) 국어과·한문과.
-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박봉배(1987), 『한국국어교육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박영목(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대한 바람”,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토론회 자료.
- 이인제 외(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은주(2011), “영역/과목별 토론 : 듣기·말하기/화법”,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청회’ 자료집.
-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현섭 외(2005),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Allan C. Ornstein·Francis P. Hunkins(2004), *Curriculum : Foundation, Principles, and
Issues*(4th), Pearson Education.
- Carol Lauritzen & Michael Jaeger(1997), *Integrating Learning Through Story : The Narrative
Curriculum*, Wadsworth Publishing.

<초록>

국어 교과와 영역명에 관한 일고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전은주

이 글에서는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영역 구분 이후 붙이는 명칭인 영역명이 어떤 기능을 하며, 국어과에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국어과의 영역명은 1) 국어 교과에서 지도할 것을 가르치는 기능, 2) 영역간 교육 내용을 구별해 주는 기능, 3) 영역의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내용의 성격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므로 영역명이 가진 이러한 기능에 맞는 명명의 방법이 필요하다. 국어과에서 그동안 추구해온 영역명 명명의 원리로는 구별성, 대표성, 명료성 등이 있다. 구별성이란 영역의 명칭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대표성은 영역의 명칭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명료성은 영역의 명칭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는 영역명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 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는 대표성, 명료성의 명명 원리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차라리 기존 ‘듣기’와 ‘말하기’ 영역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영역 교육 내용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융합적인 명칭인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 영역명으로서 더 적절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핵심어】 국어과 영역, 영역명, 영역 구분, 듣기·말하기

<Abstract>

A Thinking Over the Domain Nam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eon, Eun-joo

This article overviews the historical transition of the domain nomencla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explores the functions and the rules applied in naming the domains.

In the Korean education,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 and literature have changed their names several times, depending on the transition of Korean curriculum. The domain name has several functions - 1) defining the contents for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2) delineating the contents for education pertaining to each domain, and finally, 3) characterizing the contents of each domain. Therefore, one needs a proper method for nomenclature, considering its functions.

The principles for nomenclature in Korean education have been discriminability, representability and clarity. Discriminability signifies that one domain of Korean education should be discriminable from another by the names. Representability means the name should represent the contents of each domain. Clarity means that the name of each domain should clearly show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The domain name 'listening-speaking', which was born when the 2011 Korean Curriculum changed the domain nomenclature system based on five domains, is not suitable as a domain name. The 'listening-speaking', as a domain name does not meet the principles of representability and

clarity. In stead of combining the two previous domain names-listening and speaking-in parallel, I suggest for consideration a more comprehensive name, 'oral communication', which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ain more properly.

【Key words】 Korean educational domain, domain nomenclature, domain discrimination, transition of domain names, listening-speaking